

李相斗의 교통상식<43>



H회사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조씨는 평소 성실한 근무자세와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직장상사로 부터 장래성이 있다는 평판을 들던 유능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뺑소니사고의 주범이 돼 현재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사연인즉, 조씨는 며칠전 친목 모임에 나갔다가 소주 몇잔을 걸치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람을 치게 됐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씨는 차에서 내려 구경꾼들과 함께 피해자를 옮겨졌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음주운전이 틀분날 것을 두려워한 조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피해자에 쏠려있

는 틈을 타 엉겁결에 차를 놔두고 자리를 피하고 만 것. 조씨는 “차를 두고 왔으니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끝에 술이 깬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때는 늦은 뒤였다. 담당경찰관은 “사고현장에 차를 두고 갔어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4주의 중상을 입어 조씨는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합의를 보았지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조씨는 당시 구속 될 만큼 술에 만취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도주만 안했다면 결국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뺑소니사고를 자청한 셈이었다.

사고난 후 현장에 차두고 떠났어도

「환자조치」 하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처벌

날 출근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람을 치게 됐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씨는 차에서 내려 구경꾼들과 함께 피해자를 옮겨졌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음주운전이 틀분날 것을 두려워한 조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피해자에 쏠려있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합의를 보았지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조씨는 당시 구속 될 만큼 술에 만취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도주만 안했다면 결국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뺑소니사고를 자청한 셈이었다.

쉬어가는 코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 지조와 신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

(미국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삶)속으로 걸어 들어왔다가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진실한 친구들만이 당신 가슴 속에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다루기 위해선 냉철한 머리를 쓰세요. 남을 다룰 때에는 당신의 따뜻한 가슴을 쓰세요. 노여움(anger)이란 위험(danger)이라는 글자에서 “d”자 한 자가 빠진 글자입니다.(성냄은 해롭다는 뜻)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한 번 배신한다면 그것은 배신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두 번 배신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만든 당신의 잘못입니다. 위대한 마음들은 思想을 두고 논의를 합니다. 보통 마음들은 사건이나 행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작은 마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지조와 신념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은 자연의 우발적인 산물이지만 아름다운 노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작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으십시오. 남의 잘못을 되풀이하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친구들, 당신, 그리고 나 당신이 또한 사람의 친구를 메려와서 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들은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모임 말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모임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Today is a gift.)

〈자료제공 : 김 진(경우회 재정관리처장)〉

경우 碁友會 발족

— 碁力향상과 친목도모에 앞장서기로 —

초대 회장에 이두선 회원 선출



경우 기우회가 최근 경우회 중앙회 사랑방에서 구홍일 경우회장, 이용상 전 전북 청장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모임 겸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이두선 前 황성서장(아마 5단)을 선출하는 한편 회원상호간의 碁力향상과 친목도모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구홍일 경우회장은 축사를 통해 『바득은 정신을 수양하여 道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기우회원들이 동지면 큰

화하고 조직발전에도 적극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발기인들의 만장일치로 아마 5단인 이두선 前 황성서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륜이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은신데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족과 더불어 기우회는 매주 수요일을 정기 모임일로 정하는 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원 누구나 개별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바둑강좌도 가질 예정이다.

발기회원 명단(가나다순임)

강영환 김병철 김윤택 김제환 김종도 김택제 노완석 박돈희 박용길 박천표 박정식 박하상 백창현 변재훈 손기석 송인성 신남수 신노식 안영무 오세호 윤용건 윤원호 윤탁량 이 열 이두선 이용상 이종한 이태기 임종팔 장대근 전병두 정영채 정운호 정원호 정준판 조재환 채영구 최근성 최동석 최봉희 하만정 황달주 황준환 황친규 황철권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개설

- 마산중부 경우회, 奉仕組織 이미지 제고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분야별 상담 警友 2명 근무

마산중부 경우회가 최근 관내의 빈 치안 센터를 활용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개설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마산중부 경우회는 지난 1월 10일 마산시 성호동 북마산 치안센터 2층의 약 60여평의 사무실에 김덕현 회장, 정수태 마산 중부서장, 황철권 마산시장, 하문식 마산시 의회 의장, 내빈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개소식을 갖는 한

편 저명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무료상담소 개설과 관련해 마산중부 경우회는 지난 해 10월 이사 및 회원 60여명의 동의를, 11월에는 고문회의를 개최해 최종 승인을 받는 한편 마산중부 경찰서와도 협의를 갖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무료상담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분야별 상담관인 警友 2명이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수사, 교통, 경비, 청소년, 분실물, 기타 각종 서류 대서 등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마산중부 경우회는 상담소의 홍보 대책의 일환으로 상담소 입구와 육교, 시민 밀

경기 이천에 호국용사 묘지 조성 - 5만기 규모의 납골당 건립 -



경기 이천에도 호국용사 묘지인 「국립 호국원」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이천 호국원」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산 기슭 9만 2천여평 규모의 부지 위에 야외 5만기 규모의 납골당 형식으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38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0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의 호국용사들의 위훈과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1만 5천평 규모의 경북 영천과 10만 6천평 규모의 전북 임실에 건립·운영되고 있으며, 남부권 호국용사묘지는 경남 산청지역에 내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호국용사묘지가 각 권역별로 조성될 경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 70여만명이 안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집 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 언론 보도,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덕현 마산중부 경우회장은 『재직중 취득한 귀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생활법률 무료 상담센터」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산에서 始山祭

경우산악회, 모임의 활성화 기대

경우산악회는 최근 서울 도봉산에서 김우현 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도 첫 등반을 갖는 한편 「거북샘」 인근에서 始山祭를 갖고 한해의 무사산행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김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신입회원 모셔오기 운동에 적극 나서 모임의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회원들간에도 상호친목을 돈독히 함으로서 참가하고 싶은 산악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는 한편 지난 한해 등반 일정에 한반도 빠지지 않은 공석민 회원을 비롯해 참석률이 좋은 모범 회원들에게 개인

사비를 출연한 시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산악회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강석민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참여 회원들은 도봉산 8부능선에 위치한 거북샘에 올라 시산제를 지내고 등반의 안전과 모임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檢·警 搜查權 調整, 더 늦출 수는 없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경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본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